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위험체제관리 실행 및 적용 연구

신정수, 김정곤, 이승욱, 이하연, 이동현, 변현수*
여수대학교 화학공학과
(hsbyun@yosu.ac.kr*)

1996년 PSM 제도의 법적 도입 이래로 국내 화학산업의 안전관리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나, 좀더 체계적인 위험관리 방법인 위험체제관리(Risk Management) 분야는 일부 선진 석유화학 회사에서 도입되고 있다. 특히 국내의 위험체제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및 자격인증에 대한 과정이 全無한 실정이며, 화학산업에서도 이의 도입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PSM의 도입초기부터 위험체제관리에 대한 항목을 제외하고 도입한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절차의 도입은 많은 인력과 장비(프로그램) 및 많은 경영자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면에서 국내 화학산업계의 현실에 비추어 법적인 도입을 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 차원 높은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위험관리절차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에 대한 산업계, 학계 및 정부 기관의 지속적인 연구 및 실행이 필요한 시점이기에 위험체제관리절차 (Risk Management Procedure)의 실행 및 적용에 대한 선진 화학업계의 적용 사례와 현황에 대해 조사하였고, 국내 화학산업에 적용 가능한 위험체제관리의 과정 및 체계적인 교육절차, 인증과정을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안전관리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체제관리절차에 대한 실행 및 적용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